

화학기업, 한·일 FTA 영향 “미미”

KIET, 화학제품 관세 인하효과 없어 ... 기술도입 없이 시장잠식

한국과 일본이 FTA를 체결하더라도 국내 중소 화학기업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KIET) 김학기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한·일 FTA 체결이 중소기업의 일본수출에 미칠 영향>에 따르면, 한국-일본의 FTA 체결로 국내 중소 화학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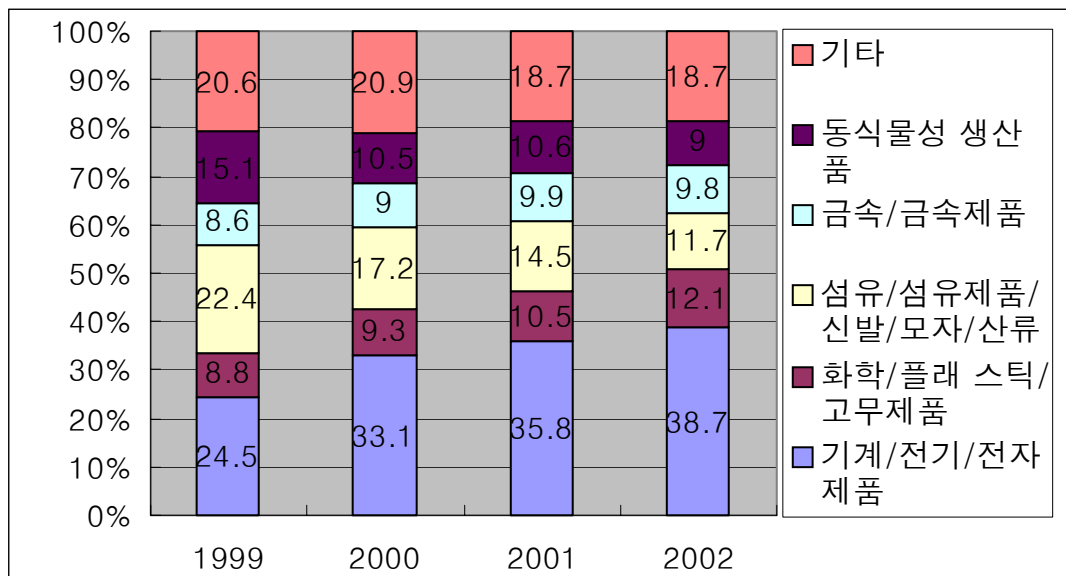
현재 관세가 높고 수출규모가 커 일본 시장점유율이 높으면서 동시에 수출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품목들만이 FTA 체결에 대한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중소 화학기업들이 일본에 수출하는 화학제품, 플라스틱, 고무제품 등은 1-2% 내외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해 2002년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 683억달러 중 12.1%를 차지했다. 그러나 화학 관련제품은 관세율 기준으로 볼 때 관세율 1-5%인 제3군에 속하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수출규모 1억달러 이상으로 A그룹에 속하는 플라스틱(HS 39)과 유기화학제품(HS 29)은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수출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가 철폐된다면 일본수출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A그룹에 속한 화학제품 대부분이 범용제품에 국한돼 있어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수출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의 일본수출상품 구조변화



자료) KOTIS

B그룹에 속하는 무기화학제품(HS 28)은 수출 증가폭이 커 관세 철폐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을 것으로 기대되나 일본 시장점유율 자체가 1.4-3.3%에 불과해 관세 인하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대개 한국-일본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일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품질 경쟁력에서 뒤지는 화학제품은 일본 수출이 증대하기보다는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중국 경제의 급팽창과 국내 대기업들의 생산기지 해외이전에 따라 관련 하청기업 등 중소기업들의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매출 감소와 도산 등이 발생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산업공동화 현상은 낮은 수준의 기술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쳐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 김학기 부연구위원은 중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한국-일본 무역관계나 경제관계만을 고려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 일본과 FTA를 체결한다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미 굴지의 화학시장으로 변모한 상황에서 일본기업들도 한국보다는 중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일본이 기대만큼 한국에 대한 투자를 늘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일본 FTA는 관세 인하에 따른 일본 수출증대보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고 기술도입 수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국-일본 FTA는 국내시장만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Chemical Journal 2004/03/15>